

- 정몽준 명예부회장, 90년대부터 꾸준히 인도적 지원 -

FIFA가 정몽준 명예부회장의 2010년 아이티 및 파키스탄 재난 구호 성금에 대해 조사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순수한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FIFA의 비윤리적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몽준 명예부회장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

정 명예부회장은 해외 성금의 경우 아이티, 파키스탄 지원 외에도 1999년 터키 지진 복구 성금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복구 성금, 중국 지진 복구 성금, 미얀마 태풍 피해 복구 성금 등을 개인적으로 기부했다.

정 명예부회장은 또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산사회복지 재단을 통해서도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의료 지원, 파키스탄 지진 피해 의료 지원(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의료 지원 등을 했다.

특히 2010년1월 집권당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정 명예부회장은 아이티 지진과 관련해, 당 공식회의에서 개인적으로 피해복구 성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명예부회장은 2010년 한국내에서 2,000억원을 기부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